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43호
3월 2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73차 임원선출 관련 선관위 회의

선관위, 3월 29일(금)까지 73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2월 22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73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선관위원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선관위원회 서기 조길수 목사의 기도,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

어졌다.

신 목사는 계 3:12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는다"며 위원들을 축복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회의는 선관위원 문찬우 목사의 개회기도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조길수 목사의 경위보고가 있었으며 오는 3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입후보자 서류 도착분에 한함)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문발송과 함께 목양신문에 공고(목양신문 제1243호 2024년 3월 2일자 7면에 게재)하기로 했다.

조용묵 목사 명예철학박사학위 성결대학교에서 수여 받아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묵 목사는 지난 2월 15일 (목) 열린 성결대학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철학박사(Ho. Ph.D) 학위를 받았다.

성결대학교(이사장 박광일 박사·총장 김상식 박사)는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동 대학교 발전과 한국신학계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공헌하신 조용묵 목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조용묵 목사는 지난 2010년에는 미국 루이지애나 침례신학대학교(Louisiana Baptist University, 총장 닐 웨버)로부터 '일관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와 사역으로 선교와 교육 분야에 끼친 지대한 업적'과, '유례없던 동시예배 시스템을 처음 구현하여 그 후 많은 교회들이 선교와 교육에 적극 활용하게 된 공로'로 명예신학박사(Doctor of Sacred Theology) 학위를 받은바 있다.



교단 제72차 총회 제10회 임원회

‘4.10총선에 전자장비 사용폐지 및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시행 해야’

북의 핵도발 대처 한미일 공조강화



예하성 총회장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19일(월) 오전 11시 전남 고흥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 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임형순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46:1-10 말씀을 본문으로 '이르시기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기에 환난 중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온전히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정진균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백영자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조선남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2024년도 목사고시,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2023 전국청소년 동계연합수련회 개최, 교정선교위원회 모임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교역자은퇴 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천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다.

이어 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금)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되는 것과 2024년도 사이버신학원 개강(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정기지방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전 지방회에 공고했음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염병 공식 종료 선언 후에도 끊임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어지고 강력한 독감을 비롯 최근 꽤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잘 점검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오는 4월 10일(수) 총선과 관련 부정선거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검표과정의 수개표 작업 및 전산시스템 조작이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행정조직 마련을 완벽하게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말’



조용묵 목사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본문 말씀은 자신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고난이 지속될 때에도 낙심치 않도록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그 생애의 기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위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견줄만한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이 두 족장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것을 매우 극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경험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도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돌이 합해지기에는 비좁게 되어 서로 떨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롯은 소돔 성이 있는 요단 들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롯은 신앙생활에 유리한 곳보다 상업하는데 유리한 곳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이 롯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편성하고 소돔을 비롯한 남쪽의 다섯 나라를 침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이끌고 이웃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추격전을 벌여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재물을 되찾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포로 되어 가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회에서 크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체험한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의 손길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자신이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꿈을 두 번이나 꾸고 이를 발설한 까닭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온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석대로 7년 흉년 동안 양식을 무수하게 저장하였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그 양식을 방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로 애굽에 양식을 사온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그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을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조카 롯도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돌이 합해지기에는 비좁게 되어 서로 떨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다. 롯은 소돔 성이 있는 요단 들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롯은 신앙생활에 유리한 곳보다 상업하는데 유리한 곳을 선택하다 보니 결국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이 롯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였습니다. (창 50:20-21) 요셉이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평강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간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은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성도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말합니다.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최재영은 북한문화공작원인가?

한기총, 성명서 통해 최재영 행보와 전력 공개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2월 16일(금) '목사 신분조차 위장 같은 최재영은 북한문화공작원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영부인에게 항정, 불법 녹화를 한 최재영 목사의 행보와 전력이 낱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도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최재영은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 참석 ▲2014년 9월 재북인사 8명의 사진·악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철(전 유엔 참사)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7회 이메일 통신 등이었다."라며, "특히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북한 평양에 소재한 '재북 인사 묘'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건넸다고 한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떻게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를 무혐의로 끝낼 수 있는가? 혹 그가 재미교포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분이 났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최재영은 2015년부터 북한 교회와 종교기관들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책을 집필했다. 책에서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강연을 열었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북한을 선전하는 전형적인 진북 행위를 했다."라며, "성경을 보기만 해도 총살시키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대로 영무새처럼 말하는 것에서 목사라는 신분도 위장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다.

계속해 "그러한 과거 행적의 연장 선상에서 영부인에 대한 합정 취재, 불법 녹화가 진행된 것이다.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북한에 드나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성(性)이나 다른 무언가로 어떻게 해서든 엮어서 북한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최재영이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향'이나 '약인' 무언가가 조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수사당국은 소위 북한 공작원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최재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충남기총,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박귀환 목사 총회장에 선출, 발전위원회 활동 동력 강화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는 지난 2월 22일(목) 충남 아산시 '생명샘동전교회'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박귀환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우는 한편,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개정으로 단체의 사명과 역할을 공고히 했다. 이날 예하성 전임총회장 진등용 목사와 총회장 김병목 목사,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임기를 마친 김중우 목사의 뒤를 이어, 부총회장 박귀환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면서 새 회기 단체의 사명과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도 일부 개정하며 활동의 동력을 만들었다. 아울러 전임 총회장 김중우 목사의 이임



식과 신임 박귀환 총회장의 취임식도 진행했다.

이날 새회기 충남기총을 이끌게 된 신임 박귀환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하고 사회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며, 교회와 사회라는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악법대응운동본부, 제3회 정기총회

악법 및 나쁜 조례 막는 일에 전력투구키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16일(금)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막아내고 이미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를 폐기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17개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여 2년 전에 출범한 기관이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대표회장이며 예정합동 총회장인 오정호 목사가

'Biblical Standar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되는 2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공동회장으로 수고한 원성웅 목사와 맹연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심하보 서울기독교총연합회장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반 회의에서 악대본은 정관에 따라 분부장회의가 결정한 임원을 소개했다.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와 공동회장 강안실 목사(부산기총 대표회장)는 유임키로 하고 오병열 목사(경기도 대표회장)와 박진석 목사(포항 기쁨의교회), 백운주 목사(서울 증가교회)를 새로

운 공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박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김원평 장로는 유임시켰다.

이어진 3부 사역 나눔 시간에는 김원평 교수(정책기획위원장의 사역설명에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학생인권조례문제와 대법원 행정처가 추진하려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가 차별금지법과 성경고등비평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목회자유가족자녀돕기, 24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

예수자랑사모선교회 자녀들 41명, 총 5540만 원 전달해



목회자유가족자녀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목사/이하 목유본)는 지난 2월 1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홀사모들의 모임인 예수자랑사모선교회(이하 예자회) 자녀들에게 2024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총 5,540만 원으로,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9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 7명, 유치원 2명을 합해 모두 41명이다.

목유본 사무총장 최우성 목사(태은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이장숙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의 기도, 최지훈 청년(태

은교회)의 클라리넷 특별연주, 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과유나·과요한·과유준 삼남매의 특별찬양, 선교국 대동화 총무의 격려사, 정대령 목사(홍제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는 창 1:1-5 말씀을 본문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에도 아침과 저녁이 있다며 아버지 혹은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저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곧 '아침'도 온다며 그 기대와 희망으로 '저녁'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대동화 총무는 격려사를 통해 "목유본의 장학금은 학업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사랑 넘치는 장학금이다. 날이 갈수록 예자회 회원이 늘어나는 건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감사하다. 장학금 수혜자들이 감리교회와 세계의 일꾼으로 자라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3.1 구국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수호대회

오후 2시 서울광장, 한보연 등 100여 개 단체 참가

한국교회보수연합(대표회장 박만수 목사/이하 한보연)과 100여 개 구국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3.1 구국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를 개최한다.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는 대회 개최 의미에 대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공산화와 적화통일의 길로 치닫고 있다. 우리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국 상황을 절감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3.1 만세운동처럼 이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수호대회는 1부 예배, 2부 강연, 3부 구국기도회가 열리며 이에 앞서 식전 문화행사로 갖는다. 특히 강연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권영해 전 국방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장현원 목사,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호 목사, 김재동 목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이계성 대수전 대표, 이석복 대불종회장, 조양건 애국단체총연합 공동대표, 이

종만 헌법수호단 총단장, 한민호 공실본 대표 등이 참석해 강연을 한다.

특별강연으로 바리튼 김영실 교수, 윤항기 목사, 김수철 교수, 서원실 교수, 윤정참존교회 IMBS기독교콜로찬양단 외 공연팀 다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거룩한 방파제 제4차 남해안 15개 지역

진도에서 거제까지 국토 최남단 517킬로미터 잇는다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테트라포드가 되어 반성경적인 세태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거룩한 방파제로 연합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등 '거룩한 방파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시

작된 국토순례,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거룩한 방파제 제4차 국토순례는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벌교, 순천, 여수, 광양, 남해, 사천, 고

성, 통영, 거제에 이르는 국토 최남단 15개 지역 약 517킬로미터 구간을 걷게 된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월 20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차 국토순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응원과 참여를 요청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목사는 "그동안 3차례의 국토순례를 통해 37개 도시 1570킬로미터를 완주했다. 테트라포드 하나로는 방파제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테트라포드들이 모여서 방파제를 이룬다"며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된 것처럼 거룩한 힘으로 연합되어 226개 시군구의 연합이 이뤄지게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교회경신협, 제23차 기도회 개최

나라와 민족 및 이웃, 기교연 단체 위해 기도

(사)기독교교회개혁연합회(이사장 남윤국, 대표회장 박대규 목사/이하 기교연)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소재 여전도회관 루이스홀에서 교회경신협의회 제23차 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기교연 소속된 총회와 단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문석 목사(복음의순례자교회)의 사회로 김기일 목사(시온교회)의 기도, 찬양사역자 김은주 목사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상임회장 최봉길 목사는 마 21:28-32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위정자 및 정치와 경제문화 안정을 위하여) △기교연 소속 총회와 단체를 위하여(기

도회 활성화 및 주님의 뜻과 사명감당 위해) △목회자를 위하여(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을 갖춘 목회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목회자, 목회자의 가정과 자녀 위해) △교회회를 위하여(교회의 본질회복, 전도와 선교 및 영혼 구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 위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 경영인이라면 반드시 사명선언문 있어야”

이장로 명예교수 CBMC 강서지회 ‘기독교경영과 예수님의 리더십’ 특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강서지회(회장 이명철)가 2월20일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갖고 2024년 주제인 '하나님은 나의 기업어르신이다'를 더욱 고백하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될 것을 소망했다.

화요일 아침에 모이는 일터지도자들을 위한 말씀공부 '하오 바이블 아카데미'로 모인 강서지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인 이장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기독교경영과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 배움의 시간

을 가졌다.

이 교수는 "기독교경영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글로 쓴 사명선언문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사람들을 개발시킴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함 △이윤을 창출함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기독교경영인이라면 하나님나라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존경받는 리더십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도 하나님의 선교 영역이고 기독교경영인은 기업에 파송된 선교사다. 기독교경영인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든 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존경받는 리더십 모델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생명의 말씀



백영자 목사

- 녹동순복음교회
- 예하성 교단 재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로마에서 쫓겨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 질 당시의 상황은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아들 네로가 더 큰 핍박을 시작하려던 때로 추정합니다. 핍박을 당해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담대해야 큰 상을 얻습니다(35절).

믿음은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목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칼로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

다. 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삼상 17:5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뺨으로 믿고 배짱으로 싸웠습니다. 기아자동차 사장이었던 피터 슈라이어 씨는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배짱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배짱 있게 사자 굴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딤후 1:7). 담대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생기고 비가 내리면 땅이 젖습니

다. 사람들은 믿음있는 사람은 배짱으로 살아갑니다. 배짱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둘째 인내해야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36절).

참지 못하는 성품은 일을 그르칩니다. 소홀도 당긴 감에 빠라는 말도 있지만, 잘 참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

다. 이슬 우화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 담담했던 욕심쟁이 할머니가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거저 얻게 된 황금 알이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7-8)고 하셨습니다. 밥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합니

다. 셋째 물러서지 말아야 구원을 받습니

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천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은

찬양할 때> 마다 신학생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했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힘이 마땅하리라”(히 2:1)는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인 투우 경기가 유명합니다. 넓은 경기장에서 투우사와 소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투우사의 창에 피투성이가 된 소가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멈추어 쉬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만 소에게는 그 곳에서 숨을 돌립니다. 그 곳을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투우사는 퀘렌시아로 가려는 소의 걸목을 막고 창을 던집니다. 창을 맞으면서도 퀘렌시아에 가서 숨을 돌린 소는 투우사를 이기고 살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어도 잠시 숨을 돌리고 또 다시 달려들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8)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롬 8:26). 하나님을 믿으면 용감해집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4.10총선 요구사항 발표, 조선 중앙 전면광고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는 최근 부정선거 없는 4·10 총선을 위해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도장을 날인 하라. 2.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말라. 3.사전투표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4.해괴망측한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강독하라. 5.대법원은 선거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라 등이다. 이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가 조선일보 2월20일자과 중앙일보 19일자에 게재되었다.

천한 대표 '3.1운동은 신앙운동'



한장총 천한 대표회장은 “2024년 3월 1일은 삼일절 105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1919년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맞서 자유를 찾으려 했던 자랑스러운 범국민적 독립운동이었고, 한국교회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참여한 신앙 운동”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해결 결혼부터 시켜야



기독교 결혼 컨설팅업체 ‘그레이스메리자컨설팅’ 대표 조병찬 장로는 최근 저출산해결을 위해 “정부나 한국교회나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아이를 낳게 하려면 먼저 결혼부터 시켜야 하지 않느냐”며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출산장려 혜택을 주면 뭐하나? 결혼 장려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조찬기도회 제3대 회장 선임



연세조찬기도회위원장이 지난 2월 5일(월) 연세대학교 앞관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를 연세조찬기도회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의사는 환자의 행복과 존엄성을 먼저 고려해야

정부가 국민의 의료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는 정책 발표 후, 의료계는 반발해 왔다. 그러다가 19일 서울의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시화 되었다.

환자들에게 있어, 의사는 직업인 이상의 존경의 대상이며, 질병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하는 선생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정치적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하며, 환자들은 버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최하위라고 한다. 즉 인구 1,000명당 전공의 숫자는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0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미국 2.7명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수년간 꾸준히 전공의를 늘려왔다. 미국은 20년간 38%를 늘려왔고,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1년 1만명으로, 영국은 2002년 4,300명에서 2021년 9,280명으로, 독일은 2015년 10,728명에서 2022년 11,752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호주는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한국은 1998년 3,507명에서 현재까지도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전공의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의료 공백과 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사는 환자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아픈 환자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반대한다고, 합부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접 살인과 같은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곱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오히려 의료계도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의 질이나 국민들의 건강보현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땀까지 흘려야 할 만큼의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의사들은 현대적 의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즉 “제네바 선언”이다.

이에 의하면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여,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할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할 삶, 잠재력을 키울 것이다” 라고 선언(宣誓)한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는 질병 치료의 희망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환자 없으면 의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국민들의 76%는 의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의 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환자들 아픔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를 어찌 의사(醫師)라고 하겠는가? 의사(醫師)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여기에 가담할 의료진이 있다면, 돌아서서,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인천지방회 월례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2월 22일(목) 로렘나무교회(담임 김연자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성구 목사(순복음생명나무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동임 목사(산돌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진원 목사는 마 21:1-4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을 감당해 가는 목회자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점검하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온전히 풀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김리함 목사(사랑의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권영옥 목사(순복음생명나무교회)의 특송, 부회장 이나연 목사(진주순복음교회)의 광고, 전임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로렘나무교회 김연자 목사(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필리핀 선교 해외성회

일자: 24.4.22 (월/저녁7시20분 출발) ~ 27 (토/새벽 4:20도착)

장소: 필리핀 (이용수선교사)

회비: 80만원

신청은 3월10일까지 입니다

주최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연락처 총무 오세준 목사(010-5041-3411)

‘하나님 뭍을 알지어다’ 2024 전국 청년 동계연합수련회

미래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들 뜨겁게 찬양과 기도
배진기 목사, 김병묵 목사 등 생명의 말씀 전해



예하성 전임 총회장
배진기 목사



예하성 총회장
김병묵 목사

교단 청년국 주관 2024 전국 청년 동계연합수련회(국장 오세준 목사, 총무 배윤호 목사)가 지난 2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추위를 마쇄하게 할 정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 1박 2일간 계속된 이번 캠프는 ‘하나님 뭍을 알지어다’ (시 46:10)라는 주제아래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첫날 개회예배로 시작되어 교단 청년국장 오세준 목사의 사회, 교단 총회장 김병묵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개회예배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46:1-1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뭍을 알지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청년의 때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깨어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교회별로 참여한 청년 1백여 명이 1박 2일간 다양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교단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포항 안디옥교회)의 저녁집회를 비롯 총회장 김병묵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 오세준 목사, 이경진 목사, 임형순 목사, 조선남 목사,

주강욱 목사 등의 찬양, 특강, 기도 인도, 고대운 목사의 아이스 브레이킹 인도, 김도현 복음성가 가수의 찬양콘서트, 경배와 찬양, 공동체훈련, 간증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교정선교사역 재소자선교 중요성’ 강조

재소자들 성경필사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안재홍 목사)는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목회자와 평신도 등 도내 기독교인들로 구성돼 있다. 교정위원 상호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신앙생활 지도 및 신앙을 생활화 하도록 계도하고,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위원장 강위훈 장로(제주중앙감리교회), 부위원장 김건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를 비롯한 교정위원들과 도내 25개 정도의 교회들이 순차적으로 간식 등을 준비해서 남녀 재소자들의 예배 인도를 섬기고 있다. 기독교분과위원회의 사역은 약 2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 기독교분과위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1년 중 약 3개월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남성 재소자는 매

주 목요일, 여성 재소자의 경우 매월 3주차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얼마 전부터 재개되었다. 남자 재소자의 경우 평균 70~80명, 땅을 때는 예배참석 인원이 120여 명에 이르고, 여성 재소자의 경우도 총 재소자 60여 명의 반 정도인 3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3대 절기마다 회원교회와 후원단체들이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경우 재소자 전원에게 특별식과 선물도 제공되고, 최근 2년 동안 남성과 여성 재소자들을 위한 찬양연주용 디지털 피아노를 각각 가중하기도 했다.

기독교분과위는 재소자들과 소그룹 형식의 상담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 개인의 사정도 듣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쌀이나 라면 등을 제공하는 등 돌봄 사역도 진행한다. 재소자들의 경우 수감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나 접촉이 대부분 끊어진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돌봐주는 교정위원들에게 감동해서 마치 부모처럼 의지하며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친구와 성경필사는 재소자들의 가장 많은 변화와 간증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경필사는 재소자들이 성경필사노트 한 권을 채울 때마다 2만원의 영치금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략 노트 8권 정도면 친구와 성경 66권의 필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필사한 성경은 매주 수거가 이뤄지면서 2만원의 영치금과 새로운 필사노트를 제공하게 되는데, 매주 평균 15~20권이 노트가 수거되고 있고, 현재 재소자들이 작성중인 필사노트도 300여 권에 이른다 고 한다.

부위원장 김건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영치금을 받기 위해서 필사를 시작하다가 4권이나 5권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건수 목사는 “출소 후 취업을 했다면서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다며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도소 안에서의 예배와 성경필사를 통해 분명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지금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면서 사역의 많은 부분 위축되었었다는 기독교분과위는 지난 해 말부터 조금씩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정기예배가 2월 8일(목)부터 이미 시작되어 첫 예배는 김건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가 인도했고 2월 15일(목)에는 순복음만남의교회(안재홍 목사, 제주지방회장)에서 인도했다.

올해에는 자체결연 소그룹 상담활동, 성가대 운영, 성찬식도 계획하고 있다. 교정위원들은 활벗고 굶주리며 육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도소 사역이 그런 일 중 하나

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김건수 목사는 “100여 명의 예배 참석자들 중 단 몇 명이라도 회심해서 출소한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재범하지 않고 따뜻한 가정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런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도소 사역에 대한 각 교회 및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당부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재소자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가운데서 중재하는 연결고리의 역할과 같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설령 설교를 듣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성경필사를 하면서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면 서 교정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열정 넘치는 신앙의 에너지로 2024년을 채우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오전 11시 나주혁신도시비네치아에서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시무예배를 드렸다. 전임회장을 비롯해 모든 회원들이 바쁜 일정들을 뒤로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이대수 목사의 기타반주에 맞춰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앞에 마음을 먼저 내어 드리고, 지방회 총무 김정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배영래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지방회장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잠 29:18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에너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해를 감사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회원들에게 참된 신앙의 에너지, 목회의 에너지는 말씀의 충만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또한 올해에도 목양지마다 사역의 지경



이 넓어지며 다음세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예수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2024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재자 전도사(순복음복된교회, 전임지방회장 최정식 목사 시무)에게 전도사임명장을 전달했다.

특별기도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전임지방회장 조길수 목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전임지방회장 조은주 목사) 기도하

는 시간을 갖고,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의 헌금기도 후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의 헌금축복기도와 축도로 신년하례예배를 모두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베네치아 뷔페에서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식사와 차를 마시며 시간가는 줄 모르는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준비된 선물을 받아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2월 13일(화) 하늘소망교회(담임 조정훈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조정훈 목사의 찬송 인도 후에, 지방회 회계 김진태 목사(신한열매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김은숙 목사(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사모 중창단과 강신홍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총무 김진현 목사(버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3:11-15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완성되고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름에 ‘내가 누구인데 이 소라들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는냐’고 반문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핀 솥을 손에 가지고



입술에 대며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며 쓰임을 받았다(사 6:5-8).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불렸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하셨다(렘 1:6-7)”고 전했다. 이어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모

두 목회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각자의 목양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박용영 목사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승희 목사(잠빛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영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후, 하늘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정세창 목사의 5년생 도라지 뿌리를 선물로 받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중식을 마친 후에 인근 카페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뒤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목자가 되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2월 19일(월) 하늘빛교회(담임 임경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임경영 목사의 찬양 인도와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대표기도와 특송, 부회장 김남순 목사(월문산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4: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

교를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서로 협력하여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온유와 겸손으로 남의 약점까지도 용납하며 오래 참음으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성심은나루교회)의 중보기도 인도로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재무 오영득 목사(진리와빛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벨렐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원점명과 안건 토의 후 순복음하늘빛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4.10총선을 위해, 전쟁종식을 위해, 민족복음화 위해 기도

“2024년 제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는 지난 2월 19일(월) 7시 수정감리교회(최상근 목사)에서 2024년 제2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제1부 예배는 황기식 목사(상임회장, 아산동산교회)의 사회, 최순식 목사(지도위원)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조창훈 목사(경찰인재개발원교회)의 설교, 김이레 목사

(새힘교회)의 헌금기도, 진등용 목사(대표교문)의 축도로 이어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창훈牧사는 요 12:23-25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헌신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사명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온전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실천되도록 그리하여 다시 아산시와 민족의 전도 열기를 일으켜 영혼을 살리는 민

족복음화운동본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조찬기도회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인도로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의 환영인사,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현안 및 기도요청과 국정보고, 주제별 기도로 이어졌다.

먼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수월리장로교회 정대범 목사, ‘국가안보를 위해’ 성안교회 박차영 목사, ‘아산시 발전과 지도자들과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비전중앙처치 홍은식 목사, ‘청년들의 결혼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에덴교회 이광로 목사가 각각 주제별 합심기도를 했으며 사무총장 이진희 목사의 광고 후 기념촬영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회원들은 수정감리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행복한 교제의 시

간을 가지고 2024년 제3차 조찬기도회를 기

대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광주지방회 광주신학교 2박 3일간 동계수양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제 아래 제주에서

광주신학교

광주지방회 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우측사진)는 지난 1월 28일(주일)부터 30일(화)까지 제주도 서귀포 비스타케이호텔을 비롯 제주 일대에서 2박 3일간 동계수양회를 갖고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광주신학교 최정식 학장과 6명의 강사



진과 7명의 학생 등 13명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주제 아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의 섬 제주를 가슴에 담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최정식 학장과 정찬식 교수를 주강사로 창 1:3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정찬식 교

수의 종말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무장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역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강의 일정을 마치고 제주 하늬문 하우스, 동백하우스의 꽃과 식물과 한라산의 눈발을 가로질러 차를 마시며 깊은 위로와 격

려의 대화를 나누고 단합하여 광주지방회와 광주신학교를 부흥시키고 더욱 섬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광주신학교 교수진과 신학생들은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큰 기쁨과 감사함을 안고 귀가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폴린(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바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이승만 다큐 영화 ‘건국전쟁’ 상영관 확대 영화 관람객 100만 명 넘어

은혜와진리교회, 세계로교회 등 교역자와 성도들 단체관람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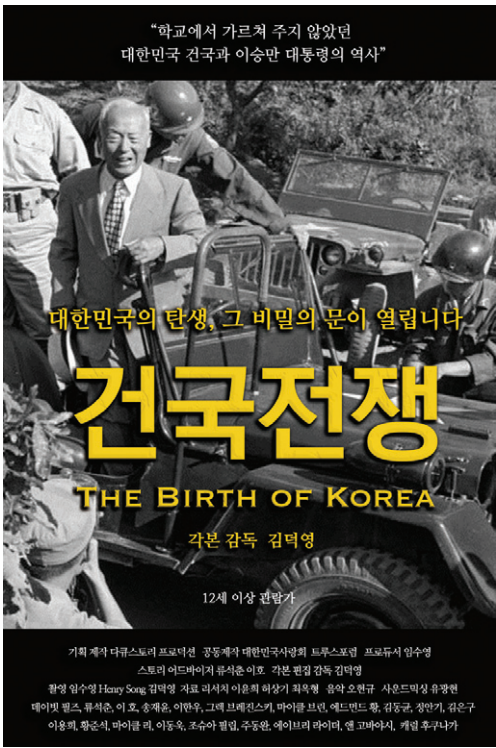
이승만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132곳의 상영관에서 개봉한 이후 전국 301개로 상영관이 확대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박민식 초대 보훈부장관은 한 영화관의 ‘건국전쟁’ 영화관람객들 앞에서 “제가 초대 보훈부장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60년 동안 역사의 패륜아로 낙인찍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의 우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문맹률을 20%대로 낮췄고, 전 세계적으로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3개의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시켰다”는 업적도 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시켰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크리스천들이 ‘건국전쟁’을 더욱 많이 관람해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평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승만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을 세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큐 건국전쟁의 흥행은 ‘팩트만 보여줘도 이승만에 대한 오해들이 풀릴 것’이라는 김덕영 감독의 생각이 적중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영화

관객들은 관람 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박수를 보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에 대해 ‘장기집권이었는지언정 독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동안 감춰져 왔던 이승만의 여러 업적들을 조명한다. 특히 문맹 퇴치운동을 통해 80%에 달하던 문맹률을 20%대까지 끌어내렸고, 이를 통해 교육받은 국민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 60년 동안 무려 7차례 전쟁터가 되어야만 했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켰고, 농지개혁에 성공함에 따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419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문하며 울먹이던 이승만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등 이승만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깨뜨리려 시도했다.

‘건국전쟁’의 관람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나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은혜와진리교회, 부산 세계로교회(손혜로 목사),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 등 교회들이 중심으로 한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위협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2일(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시대적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태균 목사 신학박사(Th. D.) 학위 취득

경기지방회 화목한교회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지방회 화목한교회를 사모 김경순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안태균 목사는 지난 2월 15일(목) 용인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졸업과 함께 신학박사(Th. D.)학위를 수여했다.

안태균 목사님과 사모 김경순 목사님은 주님 앞에 늘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미력이나마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단과 소속교회, 그리고 사역자와 그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고 소식을 보



내왔다.

2016년부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왕복 6시간씩 소요되는 거리를 오가며 2019년도 석사학위를 받고 2020년부터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며 논문 통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줌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무려 8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하여 신학박사(Th. D.)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4월 총선에 사전투표, 전자장비 폐지하고 현장 수개표 방식 도입하자

대만과 독일 개표 방식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 수개표하여 국제적 신뢰를 받는다

독일 스피겔 지(誌)에 올해 1월 13일 대만 총선거가 아날로그 개표 과정이 보도되었다. 공산주의 중국의 대만 침공의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만 정부와 국민의 모습에 대하여 찬사를 하였다. 투개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다.

개표결과 독립과 민진당 후보와 친중을 주장하는 국민당후보가 접전한 가운데 4시간 만에 민진당 라이벌이 후보가 승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일체 전자 장비를 쓰지 않고 수개표해서 외신들의 찬사를 받았다. 대만에는 1만 7천 개 투표장이 있다. 선거 투개표 과정에 어떤 부정 조작이 개입되었다면 이의가 제기되고 선거 결과는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투명한 투개표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깨끗한 승복으로 끝났다.

살렘내베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한 번 우리 사회가 내외적으로 사전투표의 조작 시비, 그리고 개표방식에 있어서 전산 조작 시비에 휘말려 사회 분열에 빠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정한 투개표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제안한다.

1. 한국의 선거관리위는 불신을 씻기 위하여 철저히 적폐 청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선 캠프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고, 다음 대선 직전에 연임시키려 해 선관위의 중립성을 파괴했다. 실상상사고 고용 세습 등의 부패 관행이 드러나면서 선관위는 스스로 썩은 조직이란 오명을 썼다. 재검표 현장에서 접힌 자국 없이는 뱀뱀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형상 복원 투표용지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는가? 선관위의 공적 신뢰는 벌써 무너졌다. 지난 10월 2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 선거에서 외부 세력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2%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 방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

전 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해명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대신 인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사전 투표시에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각종 불신의 여지를 일컫는 선관위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실제로 투개표에 조작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 선거사무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때 본 투표 전(前) 3월 5일 밤 9시. 투표함 봉인을 뜯어내고 여러 소쿠리에 담은 투표지들을 집어 넣는 영상, 2022.03.05.21:15~이 그 증거다. 인천 남동구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윤석

영,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한다. 이라니 대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고 이진 후보자와 정당만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만 개표 방식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전자 개표기 없이 현장 수개표이다. 대만에서는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대만은 1만 7천 곳에서 개표하여 4시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 들며, 해당 후보의 이

독일에서는 전자개표방식을 없애고 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되면 개표가 투표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가 되니 투표함이 이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개표 상황을 자유롭게 들어 가서 참관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 2표(제1투표는 선호하는 선거구 후보자에 투표, 제2투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행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투표 참관인이나 감시하는 경찰도 없다. 그런데 부정 선거 시비가 없다. 높은 행정의 신뢰와 시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5.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어서 전산 조작, 투표지 조작 등 부정 시비가 늘 있어왔다.

사전 투표와 전자 개수기 사용에서 조작(操作)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개표 방식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 정부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이 동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치에 따라 선거 부정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대만 선거 개표방식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충격적이고 극적으로 투명했다”고 칭찬했다.

외신들은 대만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만에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6년부터로, 이전까지는 1949년 10월 중국 공국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에 의해 일당 통치돼 왔다. 즉 불과 30여 년 전까지 국민당이 지배하는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렀던 대만엔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디지털보단 유권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手)개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투표소가 개표소다. 방장 선거를 연상케 한다. 한국 시청자들도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찬사(讚辭)를 보내었다. 중국 개입을 막기 위해 사전 투표도

를 외친다.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다른 종사자는 철관 위에 비틀 정자(正)를 한획 한 획 그려 나간다. 그 어느 순간에도 제3의 무엇이 개입할 여지라곤 없다. 사람에 의한 것인데, 참다 기기에 의한 것인데 조작할 여지가 없다. 대만 선거에 부재자·사전 투표가 없다는 점도 비슷하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이란 평가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에는 “전자 개표의 안전성은 기술적으로 증명됐지만, 대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4. 독일에서도 투표소에서 수동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

통일 독일 헌법 재판소는 2005년 선거 전자투개표에 대해 해킹 가능성 만으로 위험결정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동일 시점 투표”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사전투표제가 없으며 투개표시에 전자장비 사용자체가 위험이다.

한국의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1만 4천개의 투표장이 있다. 투표함이 행정구역별(보통 시군구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집중 개표 방식으로 투표함 이동이 있다. 여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한국 투표과정에는 투표함 이동, 보관, 투표지 쏟아 붓기, 분류기 작동,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정원도 그 취약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대해서도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보았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2020년 총선 경우 “당일 투

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다. 4-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이런 민심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그는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전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선관위의혹”...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미국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미시간대 교수까지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

정장 보궐선거에서도 컴퓨터 조작설이 난무하였다.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러한 선거 개표 조작설 유포는 사회 신뢰를 좀먹고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개표 방식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투표에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오는 4.10 총선에 바로 도입해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 확립하자.

개표 결과를 하루나 이를 빨리 알려고 전산 장비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디지털 맹신이며 속도광의 어리석음이다.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도 이기기 위해 어떤 짓도 주저하지 않는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이 우리 정치와 사회를 흔들고 있다. 법치가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받으려면 선거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인정한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조작가능성 만으로 일체 전산장비 사용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지 위조가능한 인쇄(印刷)날인을 폐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4.10 총선부터 수동으로 개표점검 한다고 한다. 이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다. 선거에 대한 부정 시비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 폐지, 전자 장비 사용 금지, 손 개표 실시, 투표소가 개표소로 되어야 한다.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凝滯) 금지해야 한다.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해야 한다. 한표 한표 공개적으로 꺼내야 한다. 우리도 1만 4천곳에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일체로 개표하면 6시간 안에 완료된다고 한다. 독일·대만처럼 한국도 투표함을 직접 손으로 개표할 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선거제도가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자.

2024년 2월 19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한기총 임원회 통합추진위원회 연합

특별위원회 설치 및 각 위원회 임명장 수여

한기총은 2월 14일(수) 제35-1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이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연합기관 통령을 위한 논의상에서 있는 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의미 있는 연합 행보가 될 수 있겠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한기총은 이 외에도 임원회에서 각종 사업보고와 안건을 처리했다. 3월 1일(금) 광화문 앞에서 ‘3.1절 국민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진행 일체를 위임했으며,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에서 보내온 ‘2027 한국교회회복대회(가칭)’ 협력 요청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영에 대한 건은 추가로 작성된 성명서를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설명하고, 예정 합동총회 회원권을 정지한 사실과 양측에 분립 이전의 총회로 환원할 것을 통보한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그대로 받기로 했다.

합동장신 총회장 홍계환 목사가 보내온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소송비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개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보전은 전례에 따라 불가함을 확인했으며, 다만 이대위원장으로서 소송한 부분을 참고하여 예정합동장신 총회 회비 1년치를 면제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월간목회」 3월호 ‘청소년부 사역에 관해’

「월간목회」는 2024년 1월호부터 7월호까지 한국교회회의 ‘희망’에 관해 다룬다.

목양의 환경과 토양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뉘는 해법을 찾아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이러한 교회들의 사례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교회들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소망한다.

3월호에서는 청소년부 사역에 관해 고민한다.



한국교회가 청년들 섬길 때 출산율 오를 것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설립 감사예배

CTS기독교TV(CTS) 등 종교계가 중심이 된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 (공동총재 이철·김의식·오정호·장종현·김태영·오정현, 본부장 김경철, 이하 출대본)가 23일 오후 3시 서울 노랑진 CTS아트홀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의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최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은 국가의 미래와 존립을 위협하는 대국민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계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가 설립되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방글라데시 선교 가족세트일행 다녀와

방글라데시 전대방 선교사와 박혜숙 원장은 방글라데시에서 주님 부름을 받아 25년 동안 106개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 기도 훈련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전도복음 사역을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사역중에 있다. 가족세트전도에서도 교회 4개를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웠다.

지난 2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 간 선교지 방문과 임당예배차 방글라데시선교를 다녀왔다.

13일 화요일에는 예방수술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혜로운 전도의 발상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박혜숙 선교사가 20년 전 학교를 세우고 후임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인 여선교사는 피아노도 치면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고 복음의 요람자리 아니 할 수 없었다.

14일 수요일 디어 임당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멀리 멀리 차를 타고 도착했다. 교회 전경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부락 사람들도 얼마나 정겨운지 인근 기관장들은 모두 온 것 같았다. 몇 백 명 가득 모인 가운데 모두들 인사말씀이 끝나고 가족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광장 한 바퀴를 돌면서 디어 완공한 교회 입구까지 입성했다.

박영수 목사는 촛불을 켜고 가위로 교회 헌당식 테이프를 끊었다. 그리고 교회에 첫발을 디디며 모두 함께 행진하고 모두들 흥겨워서 두 손을 반짝 들고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정말 보기 드문 경관이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드디어 박영수 목사의 말씀과 영접기도를 통하여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며 아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임당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바라미 관사가 세운 코콜리아교회를 방문하고 15일 목요일에는 이효상 교수 스캅을 일부가 먼저 귀국했다.

16일 금요일에는 시골에 있는 사바순복음교회에 다녀오면서 성찬식도 하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볼 수 있었다. 17일 토요일에는 더 시골에 위치한 헤브론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이 예쁜 율동도 준비하여 보여주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원주만 여선생 한 분이 학생들 학교가 너무나 멀고 열악해서 주변 학생에게 교회에서 지도도 하고 방문 교육도 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디어 18일부터 저녁 밀뽕교회 등 몇몇 선교지의 소감은 다음 신문에 연재한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 한교연 내방

송 대표회장 “잘하는 건 박수, 잘못하면 비판할 것”

전선영 대통령비서실 국민공감비서관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을 내방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기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서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사회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다가 최근 국민공감비서관에 임명된 전 비서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축하 난 화분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에게 전달했다.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 종교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교연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각종 정책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송태섭 박사는 “한국교회가 정부에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튼튼한 안보로 대



한민국을 지키고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기해달라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고 잘하는 건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나 정부가 잘못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거침없이 비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지권이 기독교와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거나 그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교연은 어떤 정부가 됐든 지지할 수 없다”며 “나라의 안보를 잘 지켜, 국민과 교회가 안심하고 살고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연말 2,261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희망등록자 2천 명 넘어서

(제)사망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이하 본부)는 지난해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이어져 12월과 1월, 생명을 구하는 약속에 동참한 이들은 2,26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본부 홈페이지 ‘등록 소감’ 메뉴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소감이 눈에 띄게 늘었다.

21일 김은실 씨는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부모를 많이 만났다. 내

가 먼저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면, 언젠가 우리 아이도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다.”라고 전했다. 23일 김민지 씨는 “이웃사랑 실천의 첫걸음 같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8일 한지희 씨는 ‘어머니께서 뇌사 장기기증인으로부터 간을 이식받고 두 번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기증인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다.’라고 전해 장기기증의 송고

한 가치를 실감케 했다.

새해 첫날 김민경 씨는 ‘1월 1일을 기념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다.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한데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생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남겼다. 이어서 이튿날 참여한 최정현 씨도 ‘한 해의 시작점에서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6일 정다인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감동을 전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외의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 임원 임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하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임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당자는 제출자의 입회하에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임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임후보 등록 가·부를 임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임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임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거위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 회원에게 공지한다.
- 선거위시행규칙을 위반한 임후보자 및 총 회원은 즉시 선거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정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거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거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임후보자가 선거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거위는 임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거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 회원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접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광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거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씩

-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하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위원회 추천서
- 총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 2011. 3. 7. 제정
- 2012. 3. 5. 일부 개정
- 2012. 4. 16. 일부 개정
-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 2015. 3. 3. 일부 개정

- 1. 등록마감 : 2024. 3. 29(금) 17:00까지
-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식)
-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재영 목사(010-7457-9768)
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조길수 목사(010-6646-29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 재 영 서기 목사 조 길 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더 좋게 하십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녀입니다. 소녀는 온종일 방직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가정사를 잠깐 살펴보면, 큰오빠는 잔칫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숨졌습니다. 작은오빠는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팔아서 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공장에 다니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장 부설 학교에 다니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국내 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했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유학을 마친 후 자신의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 이접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담양 산골에서 태어나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 그러나 그 가난 가운데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가니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분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희망을 꿈꿀 수도 없었던 환경, 보통 이하의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destiny) 혹은 숙명은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도나 일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숙명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일생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기막힌 사건이 도리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집트의 권력자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소개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형들을 이집트로 초청한 자리에서 말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서의 삶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오직 십자가가 그 사랑

오직 십자가 그 사랑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을

알고 살면 최고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되어

목적 찾아 본향으로 가는 삶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인생길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 알고 살면 최고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위기 때
보혈의 죄사함 신앙이 나의 기초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몸 찢겨 피흘려 죽으신 그 사랑

죄사함 은혜 알고 살면 최고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 사랑

내 몸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

그 믿음 갖고 살면 최고입니다.

사설

‘건국전쟁’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분단의 원흉, 독재자라는 유튜브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키워드였다.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고 대한민국을 세웠으며 공산화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한미동맹으로 변영의 초석을 다진 거인의 삶이 좌파와 수정주의자들의 폄훼로 그렇게 지워졌다.

그런데 이승만의 생애를 되살려낸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1월 개봉했다. 김덕영 감독은 이승만 영화 만든다니까 친척들조차 집안 망하는 꼴보려고 하느냐고 했다는 84학번인 김덕영 감독조차도 그 시대 운동권처럼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1990년대까지도 평양시내에 이승만 괴뢰당을 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북한이 이승만을 마워하는 이유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덕영 감독의 생각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한국사 유일의 인물로 이승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지금은 건국전쟁 포스터를 부착한 버스 8대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의 거리를 누비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에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얼굴을 담은 영화 포스터가 나붙었다고 한다.

시민 수백명이 광고를 만들며 후원금을 보낸 덕분이라고 한다. 처음 132곳에서 지금은 상영관이 301곳에 이르고 관객도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다큐 영화로는 유례없는 흥행이라고 한다. 다큐 영화는 1주일 관객 5만 명이 고비라는 데 그 고비를 거뜬히 넘었다. 상영시간 100분 동안 한숨을 쉬고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닦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영화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승만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다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이승만을 비난하는 자들은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한 이승만의 ‘정읍 선언’이 이 민족을 반쪽 내셔라고 권좌를 차지하려는 노욕의 발로였다고 뽀뽀한다.

그러나 이승만이 귀국하기 전 소련 스탈린이 북한에 친소 정권 수립을 지시했고 남북한 38선 통행도 소련이 금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영화에서 드러났다. 6.25초기 주한 미 대사가 해외도피를 권유하자 권총까지 꺼내 들고 물리친 이승만,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도피시킨 김일성과 대비되는 장면들도 등장한다.

기립박수를 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너무 몰랐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했다. 왜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비틀었는지 정말 모를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 나라에는 아직도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라를 좌절시키려는 무리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국과 적대 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며 ‘전쟁위기를 피하려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하며 한미 동맹을 파기 해야한다’고 했다. 김정은의 선언이 한국과 미국 탓이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깨야한다고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

70여 년 동안 한국에 전쟁이 없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한국이 살려면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말고 비동맹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비동맹 중립외교로 가야한다고 한다.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영구 중립국을 선언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나?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전쟁이 없었을까? 이승만이 1953년 반공포로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붙잡아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이미 공산화되고 미안마 수준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거란 고려전쟁의 와중에 감감한은 ‘인간이 살아서 겪는 유일한 지옥이 바로 전쟁’이라며 이를 막으려 노력하지만 막상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선 승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며 결사항전 했다.

군주 현종은 항복하자는 일부 신하들에게 일갈한다. ‘우리는 후손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소. 우리는 항복할 권한이 없소.’라고 지금 어느 당 대표가 말했듯이 만일 더러운 평가가기는 전쟁보다 낫다며 그 시절 항복했다면?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말을 쓰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팩트중심의 ‘건국전쟁’ 영화를 보며 비아냥거리며 폄훼하고 있는 무리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친북, 중북으로 가려는 이들은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나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막 8:17-18)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4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